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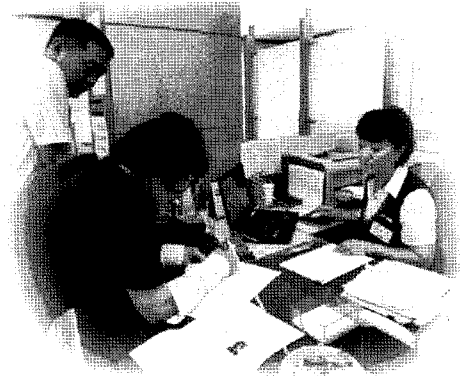


집중호우 피해기업에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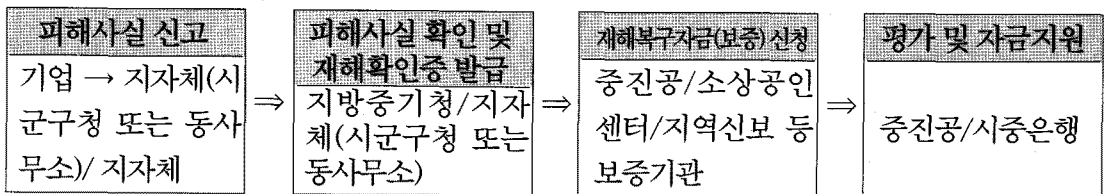
긴급경영안정자금 ·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

개요

- 중소기업청(청장 김동선)은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.
- 이에 따라,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(시·군·구·동사무소)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,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.



〈재해기업 지원절차〉



세부지원 계획

- 먼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,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.

 -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(4.08%)에 비해 낮은 금리(3.18%, 변동)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며,
 - ※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 평가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 - 상시종업원 5인 미만 도·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·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장기(1년거치 4년상환·저리(3.18%, 변동)의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 -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재해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,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
- 이와 함께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,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 - 보증의 경우 기존 보증받은 금액 이외 추가보증* 및 보증요율 감면(0.5%p)
 - ※ 신·기보 2억원, 지역재단 5천만원(제조업은 1억원)
 -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“기술인력지원단”을 구성·운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
- 재해확인증은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 등 지자체 또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발급되며,

 - 관련 지원절차 및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 - ※ 지방중소기업청 : 서울(02-509-6784), 경기(031-201-6934), 인천(032-450-1140)
 - ※ 중소기업진흥공단 : 서울(02-769-6604), 경기(031-259-7934), 인천(032-450-0512)
 - ※ 지역신용보증재단 : 서울(1577-6119), 경기(1577-5900), 인천(032-260-1501)
 - ※ 신용보증기금 : 1588-6565, 기술보증기금 : 1544-1120

